

'캠핑카 관광' 각종 규제에 발목

화물차로 분류...차고지의 주차는 모두 불법

비현실적 제재 탓에 전남 캠핑카 등록 '0' 건

자연에 벗 삼아 색다른 휴가를 즐기려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캠핑카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각종 제한과 규제에 발이 묶여 실제 이용객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관련 조례 제정 등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23일 전남도가 분석한 지역 야영장 및 캠핑카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역 야영장(캠핑장, 글램핑장 포함)은 22개 시군에 무려 '117' 개소에 달한다. 반면, 캠핑카의 경우 전남 지역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례는 전무한 상태다.

바다와 산이 인접해 있는 전례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전남의 경우 지난해 기준 누적 관광객 수가 4,270만명에 달한다. 그동안 추진한 관광 활성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전남은 국내 대표적 여름 휴양지로 각광받으면서 관광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캠핑카 분야의 성장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야영장 등 캠핑 관련 관광인프라의 폭발적인 확장에 비해 캠핑카의 등록이 저조한 것은 복잡하고 이해가 안되는 관

련법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현행 자동차관련법에 따르면 캠핑카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돼 별도의 차고지를 뒤편하고 11인승 미만 차량의 개조는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차고지 등록을 하지 않거나, 여행 등 차량운행을 하다 특정 장소에서 하루 머물기 위해 차를 지정 차고지가 아닌 곳에 정차할 경우엔 모두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자동차 업체에서 판매되는 캠핑카의 경우 약 8,000만원에서 2억원에 달한다. 기존 차량을 개조하려면 비용이 5,000만원대에서 1억이 훌쩍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억대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캠핑카 소유자들은 야외캠핑을 자주 나가려 하지만 관련 규정에 반박하기가 막히고 있다.

사실상 세위 둘째가 없다 보니 캠핑카는

말 그대로 타고 싶어도 타지 못하는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조례나 규칙 등 별도의 규정을 통해 캠핑카를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행을 즐기려는 시민 최모씨(56)는 "종편 등 방송에서 주인공들이 버스 등을 개조해 만든 자신만의 캠핑카를 타고 다니는 모습에 반해 관심있게 보고 있다"며 "막상 캠핑카를 사거나 개조하려고 보니 비용도 비싸고 차를 어디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다"면서도 "캠핑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이제 시작단계여서 여러 제도에서 모순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북부경찰서 '변사팀→사인수사팀'

이미지 제고 차원 명칭 변경

광주 북부경찰서(서장 임광문)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변사사건 전담 수사팀의 명칭을 '사인 수사팀'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변사'라는 용어가 유가족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경찰 내부에서도 전문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북부경찰서는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 결선 투표를 통해 '사인수사팀'으로 최종 결정했다.

북부경찰서 사인 수사팀은 자살, 돌연사 등 각종 변사사건의 급증에 따른 신속한 사건 처리와 함께 유가족에게 사체 인도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전국 경찰서중 유일하게 운영

되고 있다. 사인수사팀은 지난해 311건, 올해 4월까지 127건을 처리하는 등 변사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북부경찰서는 변사사건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관 1명을 추가 배치했고 변사사건이 집중 발생하는 아침, 저녁 시간대에 유동적으로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근무체계를 개선했다.

박종일 사인수사팀장은 "6명의 전남 수사관이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해 변사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범죄 유무 등을 판단해 유가족이 정상적인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지적장애인 40년간 노예처럼 부려

해남지청, 임금 착취한 70대 구속

지적장애인을 40년 동안 임금도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린 7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23일 지적장애에 3급인 A씨(81)에게 40년간 농사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혐의(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위반 등)로 최모씨(77)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197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적장애에 3급인 A씨를 진도에 있는 2만

1,000㎡ 규모의 자신의 논·밭과 김 가공 시설 등에서 일을 시키고 40여년 동안 1억 300여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 임금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며 총 5,500여만 원을 무단 인출, 가로챘던 혐의도 받고 있다.

/해남=박병태 기자

5·18국제세미나 유엔본부서 26일 개최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세미나가 미국 유엔본부서 열릴 예정이다.

주 유엔대표부가 주최하고 5·18재단이 주관하는 '광주일지:민주주의와 자유의 집단지역' 세미나엔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 한국학 학자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석좌교수, 당시 AP 통신 특파원이었던 테리 엔더스 기자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또한 음비토나 광주대교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넘어넘어) 영문판 번역자 설광수, 니카마티스 등 도 발제한다.

이번 행사에는 각국 외교관, 동아시아 연구자, 언론인, 미국내 한인회 관계자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엔 '넘어넘어' 영문판개정판 공개 행사 등이 이어진다.

/길용현 기자



'취직 좀 해보자'

23일 오후 광주시 서구청에서 열린 '2017 광주 서구 취업박람회'를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자 게시판을 보며 일자리를 찾고 있다. /김태규 기자

공사장서 토사 붕괴 3명 사상 경찰,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문화재 발굴을 위한 터파기 공사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작업에 나섰던 인부 1명이 숨지고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23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1분께 해남군 계곡면 한 공사 현장에서 쌓아둔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박모씨(76)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으며 다른 작업자 2명은 중경상을 입고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은 문화재 발굴 사전 조사를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이었다. 쌓아둔 토사가 갑자기 쏟아져 내리면서 작업자들을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남=박병태 기자

시교육청 소규모 학교 통·폐합 원점 재검토

학부모·동문 등 반발 의식 교육청 한발 물러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중인 광주 시교육청이 관련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3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

교육청은 올해 초·중·고등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 이하로 떨어지자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 추진에 나섰다. 학생 수가 54명인 중앙초는 인근 서석초와 통합해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고, 학생 수가 94명인 삼정초는 울곡·두암초와 합친 뒤 특성화고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상무·지평중은 통합한 뒤 특수학

교를 설립하고 천곡·점단중은 통합해 고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난 2월부터 교직원과 학부모, 동문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학교 통·폐합에 대한 계획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동문은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삼정초와 중앙초 등 대부분 학교

는 동창회를 중심으로 통·폐합반대대책 위원회가 구성돼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와 동문의 반발이 거세자 교육청은 결국 학부모와 동문·지역 주민·교육계·시의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으로 원점 재검토 방침을 세웠지만, 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비판이 커져 보인다.

교육청은 '작은 학교 살리기'를 약속한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 학교 통·폐합을 추진해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고광민 기자

"팔꿈치 위" 버스서 폭행

○...버스 안에서 옆에 앉은 승객의 팔이 거슬린다고 폭력을 휘두른 30대가 경찰서행.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광천동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목 적지로 가던 중 옆자리에서 앉아있던 장모씨(33)의 팔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대화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다짜고 짜 폭력을 휘둘러서야 되겠느냐"며 혀를 끌끌.

/김종찬 기자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적 입찰가 선정
◆ 최고 수익률 보장

법원경매 (주) 대신경매

※ 직원구함
경매, 부동산 관심있으신분 가족같이 배우실분 공인중개사 환영!

▶ 광주, 전남 상가건물 (빌딩)

- ◆ 동구 대인동 (상가주택) 토 128평 건 250평 월세 250만 예상 4층(주택) ▶ 감평가 8억8천5백 → 최저가 6억2천
- ◆ 남구 서동 (상가주택) 토 78평 건 114평 월수익 300만 (3층 주택) ▶ 감평가 5억2천 → 최저가 5억2천
-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상가건물) 토 89평 건 43평 (서곡지구 대단위 아파트) 4차선도로 점 ▶ 감평가 4억3천 → 최저가 3억
- ◆ 전북 전주시 덕진구 (6층상가건물) 토 141평 건 398평 대단위 아파트 (6차선 도로 점) ▶ 감평가 11억8천 → 최저가 8억3천

▶ 시외 (돈되는)절반값 상가

- ◆ 충북 제천시 의림동 (상가주택) 토 244평 건 296평 1~2층 (사무나) 3층 (주택) ▶ 감평가 9억4천 → 4억8천
- ◆ 경남 진주시 대안동 (상가주택) 토 74평 건 259평 월세 1,500만 (4층주택) ▶ 감평가 35억 → 최저가 22억6천
- ◆ 경기도 파주시 월릉면 (정비소) 토 1,270평 건 107평 파주 LCD산업단지 (10m 도로점) ▶ 감평가 28억 → 최저가 6억8천
-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주유소) 토 1,647평 건 428평 클린터휴게소 내 위치 ▶ 감평가 20억 → 최저가 4억8천

▶ 숙박시설/다가구 원룸

- ◆ 부안군 진서면 (숙박시설) 토 302평, 건 286평 월수익 1,000만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4억
- ◆ 서구 화정동 (다가구 원룸) 토 93평 건 156평 화정역 1분 월세 550만 예상 ▶ 감평가 7억8천 → 최저가 5억5천
- ◆ 동구 산수동 (다가구 원룸) 토 83평 건 145평 룸 11개 (월세 350만) ▶ 감평가 4억8천 → 최저가 4억8천
- ◆ 전주시 덕진구 (숙박시설) 토 103평, 건 359평 전주역 인근 (모텔밀집지역) ▶ 감평가 11억 → 5억6천

▶ (소액)상가 추천

- ◆ 북구 신안동 (10층중 3층상가) 토 13평, 건 34평 (실평수) 광주역 1분 (월수익 100만) ▶ 감평가 1억4,600만 → 최저가 4천1백
- ◆ 서구 치평동 (아파트 상가) 토 68평, 건 87평 상무지구 아파트 상가 골프 연습장 운영중 월세 100만 ▶ 감평가 2억6천 → 최저가 1억4천
- ◆ 광산구 장덕동 (7층중 2층상가) 토 12평 건 40평 수원지구 대단위 아파트 코너자리 ▶ 감평가 3억8천 → 최저가 2억1천
- ◆ 동구 학동 (아파트 상가) 학동중심지역 1분(대단지)아파트상가 2층중 1층 ▶ 감평가 7천9백 → 최저가 5천5백
- ◆ 상무지구 (11층중 4층상가) 토 8평 건 38평/상무지구 cgv 상가 ▶ 감평가 5억4천 → 최저가 2억4천

▶ 평택 토지 전문

- ◆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대지) 323평 - 계획관리지역 포승읍사무소 인근, 25m도로 점 ▶ 감평가 10억 → 최저가 7억
- ◆ 평택시 안중읍 (3층중 1층상가) 토 9평 건 20평 (월세 90만) 안중터미널 1분 (대단지)아파트 위치 ▶ 감평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 ◆ 평택시 진위면 (공장) 토 543평 건 327평 진위역 5분 (진위산업단지 부근) ▶ 감평가 12억 → 최저가 6억
- ◆ 평택시 세교동 (공장) 토 999평 건 2,445평 도로점, 진위역 5분 지제역 인근 (평택 산업단지 내) ▶ 감평가 85억 → 최저가 42억

① 경매 기초반 ▶ 매주 10시 30분 경매기초부터 ~ 입찰까지

② 경매 실전 전문반

실전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

010-6670-9800

010-7384-7800